

감오세 가보세

제9호

퍼낸곳/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퍼낸날/1994년 10월 10일
주 소/전북 전주 덕진구 진북1동 366-8 . 전화/(0652)252-8600,252-8599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지역민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민간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평등과 밥 한 그릇

이 윤 영

기념행사분과 상임위원

요

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인간사회의 병리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총체적 난국이니 종합적 병리이니
하는 말들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정치가 잘못되고 사회 문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로 말할 수
있다. 어떤 신문에서는 군사문화의

휴유증이 사회 폭력 현상으로 표출되고,

자본주의 단점이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곧 21세기가 다가온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간존중 사회를 건설하는데 무슨 뚜렷한

대안이 없는 모양이다.

100

년전 이 땅에서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을 한 번
찾아보자. 동학농민혁명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계승하는 사업도
벌여왔다. 그래서 우리민족의 가슴 속에 동학농민혁명의 새싹을 돋아나게
했다고 본다. 백년 전에 피로 뿌렸던 씨앗을 오늘에 돋아나게 한 희생과 봉사로 노력하신
여러 선생님들께 너무나 고마운 마음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대중의 동참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혁명은 실패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희망과 여운 속에 평등과 밥 한
그릇으로 동학농민혁명의 계승사업에 비를 내려주고, 한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조그마한 빛이 되었으면 한다. 동학농민혁명을 나는 평등과 밥 한 그릇으로 본다. 반봉건
반외세 인본주의의 주체 사상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외세의 침략은 밥을 빼앗기 위한
짓이다. 밥은 땅에서 나온다. 관리들의 수탈도 양반 상민의 계급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균등한 기회와 밥 한 그릇을 평등하게 나눠 먹느냐에 사회 병리와
난국을 수습할 수 있다. 그러면, 동학에서는 밥을 하늘로 본다. 누가 하늘을 빼앗으며
짓밟을 수 있나. 민족통일과 세계 평화는 평등과 밥 한 그릇 속에 있다는 진리는 그 속에
자유·자유·평등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다.

자 우리 모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진짜로 사람답게 살아보자

사업회 주요일지

6월

2(목) 제52차 집행위원회 회의

- 학술대회 준비사항 점검
- 기념대회 평가

3(금) 광주·전남 학술대회

- 신순철 사무처장 참석

10(금)-11(토) 학술대회

-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15(수) 제53차 집행위원회

- 운영위원회 준비사항

21(화) 소위원회의(운주)

- 제2차 임시운영위원회 준비사항
- 사업회 조직개편 방안
- 법인 임원선임 방안 논의

29(수) 제54차 집행위원회

- 정관개정안, 임원선임안, 19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논의.

7월

6(수) 제55차 집행위원회

- 95년도 사업계획안에 관한 사항

12(화) 제 2차 임시 운영위원회

21(목) 국가유공자 지정

청원서 발송

8월

17(수) 제56차 집행위원회

- 사업회 재정마련 방안의 건
- 94년 하반기 사업에 관한 논의

26(금) 동담협 회의

9월

2(금) 법인실태점검 실시

- 문화체육부의 제반 업무 점검

10(토)-11(일)

무명농민군 위령탑 제막식

-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최

제2차 운영위원회

일시 : 1994년 7월 12일(화) 17:30 / 장소 : 원광신용협동조합 3층

본 사업회에서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몇가지 사안들이 제기되어, 제2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7월 12일(화)에 원광신협 3층 강당에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먼저 정관개정안이 상정, 논의되었습니다. 본 사업회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체육부의 법인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부로 부터 정관개정 요청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정관개정안을 논의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백주년 기념사업이 계속적으로 바쁘게 진행된 관계로 지난 3월 31일부로 임기만료된 이사장 및 임원의 선출 이 그동안 미루어져 왔었습니다. 사업회의 제2대 신임 임원진을 선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임기유효 및 신임임원 명단

- 이사장/한승헌(동·백·사 공동회장)
- 명예이사장/조용술(" 공동회장)
- 김삼룡(" 공동회장)
- 부이사장/조성용(" 상임 부회장)
- 상임이사/신순철(" 사무처장)
- 이사/강봉근/김인철/노동길/노병관
- 박맹수/서지영/이종민/이윤영
- 한병길/황이택
- 감사/최덕식/김태흠

고부봉기 역사맞이 굿

일시: 1994년 2월 26일 - 27일

장소: 정주시, 정음군 일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라 할 수 있는 고부농민봉기 백주년을 맞아, 당시의 상황을 굿판으로 재현한 행사였다. 이 행사는 백주년 기념사업의 포문을 연 백주년 기념사업의 첫 행사로써 전국적으로 백주년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신명난 굿판이었다. 이 행사는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고유의 판 문화를 펼치므로써 서구화 되어가는 우리 문화의 병리현상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우리 문화의 위대함을 한껏 보여준 뜻깊은 행사였다.

이 굿판에는 전국에서 연인원 1만여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많은 사람들은 갑오년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부에 모였다고 하면서 입을 모아 고부봉기 역사맞이굿 행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기념무용제

일시: 1994년 4월 21일 - 22일

장소: 전북예술회관

동학농민혁명의 척양척왜, 보국안민이라는 드높은 이념을 기리고, 동학농민군의 고귀한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하여 마련한 동학농민혁명 백주년기념무용제는 새 하늘! 새 땅! 이라는 주제로 전북예술회관에서 공연되었다. 전북지역 무용패들과 전국의 민족춤패들이 펼친 이 무용제는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춤이라는 예술행위로 형상화 한 의미있는 행사로써 많은 도민들의 관심하에 진행되었다.

무장포고 재현 걷기대회

일시: 1994년 4월 24일

장소: 고창군 공음면 구수마을,

무장읍성, 고창읍성

동학농민혁명의 격전지를 찾아 백년전 선조들의 뜨거운 숨결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로써 1993년에 진행되었던 제1차 범도민 걷기대회 백산에서 황토현까지

에 이어 1994년에 다시 진행된 뜻깊은 행사였다. 특히, 올해로써 백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이 백년전

본격적으로 출발했던

고장인 고창과 무장에서

진행되어 그 역사적

의의 한층 빛내었다.

1994
100

백주년 기념사업

자료전시회

일시: 1994년 4월 18일 - 5월 1일

장소: 우진문화공간

백년 전의 역사, 그 숨결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 자료전시회는 서지학자인 이종학 선생님의 소장자료를 전시한 자료전으로써 2주간 우진문화공간 전시실에서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전시된 자료들을 관람하였는데 특히,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노트와 필기구를 가지고 찾아와 숙제물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띄어 젊은 세대에게 동학농민혁명 대한 관심을 심어주는 좋은 행사였다.

기념전시회

일시: 1994년 4월 23일 - 5월 1일

장소: 전북예술회관 본관, 본관

동학농민혁명의 의의를 두루 살피고, 그 백주년의 의미를 찾기 위한 주제전으로써 전국적으로 많은 미술인 참가하였다. 대형 그림을 비롯하여 조각품까지 망라되었던 이

무엇을 했나!

전시회는 열흘간에 걸쳐

전북예술회관 본관과 분관에

전시되었는데 지역도민들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관람하여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의 의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적잖은 성과를 보였다.

또한, 이 전시회는 전국의 중견작가들이 대거 참가한 대규모 전시회로써,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주제로 준비한 대규모 특별기획전으로도 그 의미가 큰 행사였다.

기념대회

일시: 1994년 4월 29일-30일

장소: 실내체육관, 전주 시청 광장.

1994년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맞이하여 펼쳐진 행사 중에 사업회에서 가장 큰 역점을 두고 펼친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대회는 바로서는 역사, 다가서는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야제와 본행사로 나누어 양일간 진행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대의를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확산시키고, 대중적 호응과 관심을 통해 진정한 역사적 복권을 꾀하고자 했던 백주년 기념대회는 전북실내체육관 광장에서 진행된 전야제에서 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전주 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된 본대회에는 정부의 관계자를 비롯한 전북도, 전주시 등 관의 참여가 이루어져 민과 관이 한자리 모여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긴 의미있는 행사였다.

또한, 이 행사에서는 전야제 집체극을 비롯한 식전, 식후 공개행사에 지역의 문화패와 많은 문화 예술단체들이 힘있게 연대하여 치룬 뜻깊은 행사였다.

기념연극제

일시: 1994년 5월 13일 - 6월 12일

장소: 전북투자금융 지하 특설무대

1894 - 1994, 가두어진 역사, 그 백년 동안의 빗장을 연다. 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의 의의와 현재적 계승을 내용으로 우리지역의 창작극회와 민족극협회의 소속 4개 극단이 함께 마련한 민족극 한마당으로써 공연물마다 몽클한 감동을 안겨준 연극잔치였다.

전주입성 기념대회

일시: 1994년 5월 31일

이 행사는 동학농민군 전주입성과 집강소 설치를 축하 문화화마당으로 펼쳐졌다. 전주 풍남문에서 동학농민군 폐정개혁안을 읽는 것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개혁정국의 한계를 얘기하는 상황이어서 많은 시사를 던져준 의미 깊은 행사였다.

기념 학술대회

일시: 1994년 6월 10일 - 11일

장소: 전북은행 강당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이제까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의 호남지역 편중을 극복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행사는 각 지역의 연구자들이 최근에 발굴된 지방사료들을 분석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보편적 특성과 지역간의 차별성을 규명한 성과 큰 학술대회였다.

삼례에서 공주대회전까지

우 윤

역사문제연구소 / 동학농민전쟁 백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연구위원

삼례로 달려오는 농민군의 끝없는 장사진

비온 뒤 온갖 푸성귀들이 푸릇푸릇 살아나듯 농민들은 집강소 운영으로 활력을 되찾고 새세상을 만드는 대열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조선에 상륙한 일본군은 조선을 삼키려는 야욕으로 6월 21일 경복궁을 침범하여 친일개화파 정권을 세웠으니 조선에 커다란 위기가 닥쳤다.

전봉준은 9월 초 금구현 원평에서 정국을 지켜보다가 전주로 나아가 직속부대의 준비를 완료하고 삼례(參禮)로 향했다. 그곳은 길이 사방으로 트인 역촌으로서 호남에서 서울로 갈 때 반드시 거치는 마을이었다. 당시는 100여 호의 소읍이었으나 역촌답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언제나 저자거리처럼 붐볐다.

전봉준이 삼례에 도착하여 저막에 임시 거처를 정하고 측근들과 함께 기병에 대한 숙의에 들어갔다. 마침내 9월 12일, 군사를 다시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 2차기병의 대의명분은 일본의 경복궁침범을 문책하고 그들의 침략야욕을 분쇄하려는 것이었다.

삼례에 투쟁본부를 설치한 전봉준은 기병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통문을 각 지방에 날렸다. 이렇게 하여 다시 일어난 각지의 농민군들은 서울로 직향하여 권귀(權貴)와 일본군을 축출한다는 깃발을 앞세우고 속속 삼례뜰에 집결하였다.

전주에서 삼례로 달리다가 삼례교에 이르면 농수로를 중심으로 드넓은 벌판이 오른쪽으로 펼쳐진다. 왕궁면 뒷산까지 맞닿아있는 이 벌판에

100년 전 농민군들이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고 장부의 기개를 한껏 뽐내며 무수한 깃발을 앞세우며 달려오는 저 끝없는 장사진을 떠올려보시라.

동학교단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음력 9월의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척왜양창의], [제폭구민],

[광제창생] 등의 행동목표를 적은 농민군의 오색기는 삼례뜰의 높푸른 하늘에 기묘한 무늬를 만들며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항일전선의 앞길에 달갑지 않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것은 최해월의 동학교단에서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다. 최해월 휘하의 농민군은 충청도 일대에서 호남농민군이 북상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최해월의 동학교단은 농민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종교적 차원에서 농민봉기를 묶어두려 했다. 그래서 최해월은 고절문(告絶文: 전봉준과 절교를 통고하는 글)을 지어 각 포에 돌렸고, 이런 고절문과 함께 별남기(伐南旗: 남쪽 농민군을 토벌하자는 깃발)까지 만들어 호남의 농민군을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전국에서 농민들이 봉기하고 있는 현실을 동학교단이 외면할 수는 없었다. 협상파들이 호남과 호서를 오가며 중재한 끝에 극적인 타결을 보았다. 마침내 별남기를 찢어버리고 남북농민군이 연합하였다. 이때가 9월 하순이었다.

항일연합전선이 형성되고

초겨울의 하늘에는 한 조각의 흰구름이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전봉준은 진격을 명했다.

농민군은 가벼운 걸음으로 삼례뜰을 출발하여 여산을 지나 은진을 휘젓은 후 방향을 틀어 10월초 강경포에 이르렀다. 농민군이 북상할 때마다 주변에서 농민들이

달려왔다. 이때 유생들도 농민군에 합류하여 항일전선에 앞장섰다.

예산·덕산·유구·서산·태안 등지의 내포지방에서도 농민군 연합전선에 합류하고자 활발히 움직였다. 9월 말부터 모여든 농민군은 10월 1일 서산관아를 공격하여 한 달간 점령하였다. 이때 태안의 농민군은 태안관아를 점령하였고, 덕산 농민군은 아산관아를 파괴하였다. 그러나 이들 농민군은 민보군과 관군의 저항으로 남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구의 농민군은 전봉준의 합류 통문을 받고 금강유역으로 몰려들었다.

10월 9일 논산에서 합류한 호서농민군과 호남농민군은 보란듯이 충청도 관찰사에게 격문을 띄워 항일전선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런 간절한 호소도 관군에게는 마이동풍. 전봉준은 1차 기병 때부터 혁혁한 전공을 올리고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을 선두로 진격시켰다.

서걱서걱 발밑에 흙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전봉준의 주력부대는 논산을 출발하여 노성을 거쳐 공주의 경천에 나아가 본진을 두었다. 이 속에는 청국군 50여 명까지 섞여있었다.

우금치에서 부여로 뚫린 국도를 따라 10km 정도 달리면 약 300여 호의 시골마을이 나타난다. 이름하여 이인. 옛날에는 역(驛)이 있던 곳으로 주변에서 공주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지였고 공주의 목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당시 거기서 공주로 가려면 목동리, 오곡리를 거쳐 주미리를 넘어서 갔는데, 공주를 손에 넣으려면 이곳을 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런 낚새를 눈치챘는지 공주감영은 이 길목 요소요소에 관군을 매복시켜 놓고, 일본군은 이인역까지 내려와 마을 뒤에 있는 당산에서 농민군의 동향을 살폈다.

공주대회전의 서막들

드디어 10월 23일 어제 내린 비로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전투는 이인에서 시작되었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복상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어 사기가 크게 올랐다.

25일 날이 밝자 농민군은 효포 뒷고개(이곳 사람들은 곰티라 부르는데, 능치라고도 한다)를 뚫기 위해 쏟아지는 총알 속을 달렸으나 가파르고 좁은 고개인 곰티는 쉽게 돌파되지 않았다. 곰티 골짜기는 농민군의 함성과 피에 젖은 시체로 메꾸어졌다. 처절한 혈전이였다. 전봉준은 날이 저물어 전투가 계속될 수 없자 농민군을 경천으로 후퇴시켰고, 경천으로 물러나온 전봉준은 아군의 피해상황이 뜻밖에도 큰 것을 알고 본진을 논산 쪽으로 옮기게 하였다. 깊어 가는 겨울날씨 못지 않게 농민군의 가슴에도 찬바람이 불었다.

타오르는 햇불은 끝없이 이어지고 **공주**에 들어가려면 북쪽의 금강을 제외하고는 삼면의 가파르고 좁은 고개길로 통해야 한다. 따라서 공주는 방어하기에는 쉬우나 공격하려면 통상 공격에 필요한 병력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천힘의 요새. 전봉준은 공주를 완전히 포위하여 일시에 총공격을 퍼붓는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봉준은 공주성을 향한 총공세를 펼칠 주공격로로 우금치로 잡는 한편, 그밖의 진입로는 보조공격로로 잡았다. 즉 곰티가 그 첫번째 보조공격로이고, 두번째가 검상마을에서 새재를 넘어 일락산에서 공주를 내려치는 공격로, 세번째가 곰나루 쪽에서 웅진동을 거쳐 현재 금성여중 앞을 지나 하고개(봉황산을 넘어 교동으로 통한다)를 넘거나 바로 봉황산 뒤편에서 감영을 치는 공격로이다. 마지막 네번째가 주미산에서 우금치와 곰티 사이의 금학동으로 빠지는 골짜기가 긴 공격로이다.

전봉준은 11월초 드디어 경천 쪽으로 대군을 진격시켰다. 농민군은 산과 골짜기를 넘어 대포를 쏘고 깃발을 흔들면서 거대한 강물이 흐르듯 맹렬한 기세로 공주를 향해 올라왔다. 이때가 11월

역사탐방 삼례에서 공주대회전까지

8일이었다. 그날 밤 농민군은 산 위에 올라 한꺼번에 횃불을 밝혔다. 타고르는 횃불은 끝없이 이어지고 충천하는 불길은 공주를 삼킬 듯이 치솟았다.

공주의 주공격로, 우금치를 넘어라

날이 밝자 농민전쟁 최대의 격전이 될 우금치 전투가 벌어졌다. 농민군의 주력부대는 우금치를 지키고 있는 관군과 우금치 옆 뱃새울 앞산에 있는 일본군을 향하여 무찔러 갔다.

농민군은 관군 방어선의 이곳저곳을 찌르고 물러가길 여러 차례, 관군의 정신을 흐트리 놓았다. 전봉준의 주력부대는 우금치가 바라보이는 산 아래 있었다. 전봉준은 효포의 곱티를 주요목표로 삼아 공격하는 척 효포 쪽에서 먼저 싸웠다. 이 사이 주력부대는 서서히 우금치를 향해 뛰었다. 제1대가 무너지면, 제2대가 우금치를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우금치 뒤에서 뿔어나오는 연합군의 화력은 막강했고, 우금치는 드높기만 했다.

이렇게 농민군과 관군은 40~50차례 싸웠지만 우금치에는 농민군의 시체가 쌓이고 피에 젖을 뿐 뚫리지 않았다. 이날 우금치 전투에 대해서 전봉준도 "2차 접전 후 1만여 명의 군병을 점고하니 남은 자는 3천여 명을 넘지 않았으며, 그후 다시 2차로 접전한 후 점고하니 5백여 명을 넘지 않았다." 하여 장렬한 싸움이었음을 회상했다.

이리하여 공주는 전봉준의 큰 뜻과 농민군의 발목을 낚아챈 잇을 수 없는 땅이 되었다. 남은 농민군은 분투를 삼키며 논산으로 나왔다.

승리를 장담받지 못한 전투, 그러나 피할 수 없었던 전투

공주 대회전에서의 패배로 농민군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농민군이 북적과의 연합에서 너무 시간을 끈 것과, 관군·일본 연합군의

화력이 너무 막강한 것이 패인이었다.

김개남 군대의 비협조도 농민군의 전투력을 반감시켰다.

농민군은 이러한 내부의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공주를 뚫어야 한다는 지상의 과제를 눈앞에 두고 회피하지 않았다. 농민군은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그 취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관군·일본 연합군이 방어하는 공주성에 달려들었고, 수십차례의 전투를 치렀다. 승리를 장담받지 못한 전투, 그러나 피할 수 없었던 전투, 이것이 공주대회전이었다. 그러기에 더욱 빛나는 전투이었다.

농민군은 남으로 퇴각하여 원평과 태인에서 각각 반격을 펼쳤으나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그후 관군은 일본군의 지휘에 따라 농민군 추격전에 앞장 섰다.

아직도 갑오농민전쟁이 제기한 역사적 과제는 계속되고

농민 군이 공주대회전에서 패하자 농민전쟁의 성과들은 반농민적 보수연합세력에 의해 깡그리 부정되었다. 그러나 갑오농민전쟁의 발발은 곧 봉건지배층에 막대한 타격이 되었고, 그 내부에 심각한 정치 분열을 야기시켰으며, 갑오개혁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통치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없을 만큼 통치체제의 변화를 강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외세와의 야합과 강제 아래 농민전쟁의 주체세력을 배제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민족의 근현대사에 커다란 역사적 부담이 되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 동질적인 시민사회와 통일 국가가 한반도에 실현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갑오농민전쟁에서 제기한, 즉 세계사적 규정력에 의한 '외적 강제'와 이에 대한 '내적 저항'이 수행되면서 완성되는 한국사회의 특이한 경험으로서의 근대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아직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1995년도 사업계획안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 교육관 건립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리고, 민족정기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학농민군혁명의 대의를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교육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 교육관 건립을 추진한다.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순례

▶예정일자: 1995년 4월 23일(일)

▶예정장소: 정읍군 일대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순례하면서 선조들의 정신을 온몸으로 체험케 하는 소중한 계기를 일반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제공한다. 화창한 봄날 동학농민혁명의 전적지 순례를 가족이나 친지, 단체 등의 야유회와 결합시켜 일반시민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깊이 있게, 그러면서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을 내실있게 기획하여 추진한다. 이 행사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전적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과 멋스러움, 흥겨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풍물놀이 등 우리의 굿판이 함께 펼쳐진다.

전봉준장군 순국 100주년 추모제

▶예정일자: 1995년 4월 24일(월)—25일(화)

▶예정장소: 전북학생회관

전봉준장군 순국 100돌 추모식 및 무명농민군 추모음악회.

1995년 4월 25일은 전봉준장군 순국 100돌이 되는 날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꺼이 한몸 바친 그분의 드높은 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범 도민적으로

펼치므로서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속에 깊게 배인 개인 이기주의를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음과 동시에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진정한 민족의 스승의 원혼을 달래고 그 뜻을 기리는 행사.

또한, 만민평등과 민족자주를 온몸으로 실천했던 그분의 순국을 추도하면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를 가진다.

동학농민혁명기념일 행사

▶예정일자: 1995년 4월 29일(토)—30일(일)

▶예정장소: 전주실내체육관

1895년 4월 30일(양력)은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이다. 1894년 4월 무장 여시피에서 봉기한 농민군은 곧바로 고부로 진격하여 4월 30일 백산에 집결하기에 이른다. 백산에 집결한 농민군은 군사적 체계를 정비하고 농민군의 이념에 기초한 '백산 창의문'을 공포하여 군대로써의 면모를 틀지게 갖추고 본격적으로 항쟁의 불길을 지펴올린다. 이러한 연유로,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인 올해 본 사업회에서는 4월 30일 백산봉기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하고 바로서는 역사 다가서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가졌었다. 따라서, 1995년에도 백산봉기일을 기해 동학농민혁명기념일 행사를 다채롭게 펼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및 집강소 설치 기념 문화한마당

▶예정일자: 1995년 5월 31일(수)

▶예정장소: 풍남문—경기전

1894년 5월 31일(양력)은, 동학농민군이 호남 일대에서 승전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호남의 심장부인 전주성을 함락하고 입성한 날이다. 동학농민군의 전주입성은 양반과

1995년도 사업계획안

상놈이라는 왕조체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역사적
사변이었다. 동학농민군은

전주입성 이후 전주화약을 맺어 합법적인 농민군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당시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던 제반의 신분적 제약들과 봉건적인 억압의 사슬을
해체시키는 “폐정개혁안”을 실천에 옮겨놓는다. 민중들의
요구에 의거한 농민군들의 진정한 개혁정신을 오늘에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한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및 집강소 설치
기념 문화한마당은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한 날인 5월
30일 전주에서 펼쳐진다.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문예제전

▶예정일자: 1995년 10월 10일

▶예정장소: 전북예술회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있어서 문학예술이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히 크게 자리한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인간존중과 드높은 민족자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작업이 문예부문에 힘있게 진행된다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대중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문예작품회의 활성화를 꾀하고,
널리 권장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문예작품은 물론,
최근 작품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넓혀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문예상을 시상하는 행사로써 문화예술 일꾼들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창작열을 추동한다.

동학농민혁명 사진 전시회

▶예정일자: 1995년 11월 2일—11월 8일

▶예정장소: 전북예술회관 본관 전시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나 그동안 벌어왔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담은 사진 자료전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전 과정과 오늘날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
까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마련하여 전시하는

행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고증적인 자료에
연매이지 않고 당시의 농민들의 생활상이 보여지는
사진들이나 동학농민혁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진을
자료로 엮어서 전시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당시의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구현하고 있는가를
입증한다.

동학농민혁명 무명농민군 위령탑 건립

▶예정일자: 1995년 11월 25일

▶예정장소: 전라북도 원평 구미란 마을

1894년 11월 25일 동학농민군 최후의 격전지였던 원평
구미란 마을에 무명농민군 위령탑을 건립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재단에 목숨 바쳐 싸운 무명농민군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무명농민군 위령국을 펼친다.

이종민 사무차장 출국

그동안 기념사업회에서 많은 일을 맡아 애쓰셨던
이종민 사무차장님이 지난 8월 20일 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교환교수로 1년 동안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에서
근무를 하시고, 1995년 8월에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주소: U.S.A 2811 S.W.Archer Rd #S
150 Gainesville, Fl.32608
전화: 001-01-904-395-6763(팩스검용)

**사업회에서 발행한
책자를
소개합니다.**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창작과비평사)**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획 출판된 책으로써, 이 시선집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한 시(詩) 70여명의 작품 90여편이 실려 있다. 그 외에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민요와 전봉준장군 유시(遺詩)등도 실려 있다.

**황토재에서 우금재까지
(도서출판 동남풍)**

이 책은,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답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출판된 답사안내서이다. 이 책에는 전라북도과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 여러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에 대하여 소개되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총론과 관련문헌도 수록되어 있다.

**주제전 도록(圖錄)
(도서출판 발언)**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전시회 에 출품되었던 작품들을 모은 화집(畵集)으로써, 120여명의 우리나라 중견 미술인들의 작품이 대거 실려있다.

**동학관련판결문집
(정부기록보존소)**

1894년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당시의 재판기록문으로써, 시중에는 없는 귀한 책이다. 이 책은, 본 사업회에서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 요청, 부수를 한정하여 출판한 책이다. 현재, 사업회 사무실에 1백여권이 남아있다.

**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
(한울 출판사)**

지난 1993년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준비를 위한 학술대회에서 토론된 내용들을 한데 묶어 출판한 책으로써, 1894년 갑오년 당시의 사회상황과 이후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한 사회변동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판매합니다

그동안 본 사업회에서 기념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그 성과를 보다 알뜰하게 보존하고자 발행한 책자를 판매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는 10퍼센트 특별할인 합니다.

1.시선집(詩選集)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창작과 비평사
가격:4,000원

2.답사안내 자료집

황토재에서 우금재까지
-도서출판 동남풍
가격:10,000원

3.전시회 도록(圖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도서출판 발언
가격:18,000원

4.동학관련판결문집

-정부문서기록보존소
가격:15,000원

5.백주년 기념메달

청동조각품(양각/양면)
가격:10,000원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대회를 비롯한 제반의 백주년 기념사업을 성과적으로 치루었습니다. 본 사업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이 기념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는데 있어 더없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회비 밀리신 회원께서는 아래 구좌로 납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는 년 2만원입니다.

우체국:400010-0255381 동학백주년기념사업회 / 농협:508-01-006538 동학농민혁명
전북은행:008-02-0044064 사)동학농민 / 국민은행:506-01-0405-153 사)동학농민혁명

우금티 순국 영령 추모

예술제

가자! 우금티... 자주 · 평등 · 대동의 세상을 위하여!

1994년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는 10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에서 진행되는 동학농민군 순국 영령 추모예술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우금티 동학농민전쟁 100주년 기념사업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추모예술제는 사라져가는 우리 고향의 진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 흔치않는 기회임을 확신합니다. 역사적 대의에 함께하고 신명나는 고향에 어우러지고, 굽이치는 공주의 금강과 우금치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각급학교나 단체, 가족이나 연인들에게는 최상의 가을소풍이 될 것입니다.

이 격조높은 우리 고향에 높은 안목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 주관: 우금티 동학농민전쟁 100주년 기념사업회
참가 문의 및 접수(마감: 10월 25일)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전화번호 (0652) 252-8600, 252-8599

전야제

추모행사

일시: 10월 29일(토) 13:00-22:00

장소: 공주교육대학교

길놀이

(풍물패, 꽃상여, 깃발 · 만장 행렬) 및
시민견기 대회

코 스 : 공주 문예회관(송장배미) - 하고개
- 세무서 - 공주감영터 - 중동사거리
- 공주고 - 공주교육대

개막공연 : 대고춤, 북춤

연극공연 : 우리 동네 갑오년 (극단 우금치)

초청공연 :

- 1)가극 금강 하이라이트 공연 (극단 금강)
- 2)명창 박동진, 안숙선의 판소리
- 3)충남관현악단, 천안국악관현악단의 동학곡 연주
- 4)칼노래 칼춤 중 효수거리 공연
- 5)은산 별신굿 공연

대동마당 : 햇불, 깃발춤 등

일시: 10월 30일 10월 30일(일) 10:30 - 15:00

장소: 공주 우금티 동학농민혁명군 위령 공원

고사굿(간단한 고사굿과 꽃상여 만들기) - 현화
봉화대 설치, 돌탑 · 흙담 쌓기 행사 - 관객 모두

참여

기념 자전거 대회
시(詩)낭송(신동엽 시인의 금강 중 우금티 전투
부분)

무명농민군 꽃상여 행렬 및 봉화올리기

탑돌이(풍물패와 참여 시민)

고풀이 공연

현무춤 공연 - 집단 살풀이(부산춤패 배김새)

흙담 위에 참가자 전원 이름 새기기



본 자료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소장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으로 구축한 것입니다.